

갤러리 **색즉시공**



오늘도

오늘도 산 하나 넘는다
무엇을 보았는가
나뭇가지 하나도 매일 자라고 있다

오늘도 절 하나 짓는다
무엇을 알았는가
석탑도 매일 부서지고 있다

오늘도 새벽이 있었다
얼마나 아팠는가
누군가 나 때문에 울고 있다

오늘도 후회한다
무엇을 얻었는가
새들도 매일 날고 있다

사진 · 글=박재완 기자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음식이 있나요

Buddha in Comic & Ani

③ 허영만의 '식객'
ABE YARO의 '심야식당'



대표 한일 음식만화 허영만의 <식객>과 아베 야로의 <심야식당>

수자타는 상상지 않은 꿈을 꾸었다. “수자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에게 최초의 공양을 올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토지신의 목소리는 수자타의 귓전에 쩡쩡했다. 수자타는 정성스럽게 소꿉을 짜 일곱 번을 끓인 다음, 정수만 골라 새 그릇에 새 쌀과 함께 다시 끓여 죽을 만들었다.

조용한 거리에서 불꽃없는 천을 두른 한 수행자가 나타났다. 수자타는 무릎 꿇고 준비했던 우유죽을 올렸다. 수행자는 우유죽이 든 발우를 들고 강가로 가서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맛있게 먹었다. 수자타

의 우유죽으로 기운을 찾은 수행자는 바른 법을 성취할 자를 찾아 숲으로 나아갔다.

위 장면은 싯다르타가 고행을 거듭하다 네란자라강의 우루베라라는 마을에서 만난 소녀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정각을 이루는 부처님 일대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서술 퍼런 칼날 위에 선 듯한 고행으로 피폐해진 몸으로는 선정의 기쁨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안 싯다르타에게는 달콤한 죽 한 그릇이 감로수였을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를 통하지 않더라도 음식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역사를 거듭하면서 인간은 음식 재료를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요리를 고안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세상에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산해진미가 존재한다. 오죽했으면 '살기 위해 먹는 것인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인가'라는 명제가 존재할까.

당연히 만화에서도 식도락 욕구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있다. 음식만화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맛의 달인>은 단행본 100권을 훌쩍 넘긴 장수 만화이고, 중흥기를 이끈 <소타의 초밥(한국명 미스터 초밥왕)>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다. <신의 물방울>은 한국 사회에 외인 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중 허영만 화백의 <식객>과 아베 야로의 <심야식당>은 이전 음식 만화와는 비교해 조금은 색다른 음식만화이다.

한국의 <식객>은 대령숙수의 후계자로 꼽혔던 성

찬이 전국 팔도 진미를 접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것이고, 일본의 <심야식당>은 동명의 식당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인생 군상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보여준다. 단순히 음식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가지 음식에도 백 가지 인생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두 작가는 원숙한 작업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포트럭 파티(pot-luck party,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두가지 종류의 요리를 가지고 와 정해진 장소에

단순 미식 정보 전달 아닌

음식과 인생사를 연결한

韓·日 음식만화의 새 장

소소한 저녁식탁에서도

행복의 진리는 담겨 있어

모여 즐기는 파티에서 만난 고시생은 자신을 뒷바라지하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애인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독백한다.

“눈만 뜨면 얼굴을 마주보고 살을 비비고 살던 사람이 죽어도 시간이 지나면 TV앞에 앉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낄대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때 느끼는 죽은 자에 대한 죄책감과 화장터 높은 굴뚝의 연기만큼 빠르게 흩어져 버린다. 때로는 무엇을 먹



<심야식당>(사진 왼쪽)과 <식객>(사진 오른쪽)의 한 장면. 두 작품 모두 음식과 인생사를 원숙하게 엮으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어야 한다는 것이 괴로를 때가 있다.” <식객 中>

<식객>의 강점은 전국 팔도에 있는 다양한 한국의 음식문화와 요리를 심도 깊은 취재로 전달하면서도 그 안에 우리네 인생을 절절하게 녹여넣는 데 있다. 이는 미각에 대한 추구이면서도 삶의 대한 성찰을 놓치지 않는 작가 정신이 투영돼 있다.

<심야식당>은 요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소재일 뿐 정확하게는 우리의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심야식당>의 요리는 이를 먹는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다.

당장에라도 회칼과 총을 들고 ‘의리없는 전쟁’을 벌일 것 같은 야쿠자는 문어형 비엔나소시지를, 이제는 지명이 없는 늙은 게이는 달콤한 계란말이를 각각 주문하고, 조로의 유랑약사와 유령 요리 평론가는 버터라이스를 시켜 그간 회포를 푼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 <심야식당>에는 기적과 같은 신분상승이나 해피엔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음식과 손님, 주인장이 존재하고, 이들의 이야기는 너무 슬프지도 않게, 너무 기쁘지도 않게 흘러간다.

분명, 식욕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 현대인의 비만과 성인병들은 대량생산, 소비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는 감로수로, 누군가에게는 독으로 작용하는 것은 음식이 가진 힘이다.

추억의 음식에서도, 친구와 혹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에서도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만난다.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닐 지도 모르겠다. 싯다르타를 정각에 이르게 한 죽 한 그릇도, 오늘 내가 먹는 한 그릇의 식사도 모두 그들만의 인생사를 담고 있다. 신종일 기자

마하연 투 어



부처님께 한결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동참 가능한 성지순례】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간 헤호 5일) 1,590,000
- 김해출발 : 2월 21, 25 / 3월 1, 5, 9, 13, 17, 21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요금문의
- 인천 출발 : 2014년 2월 22일, 3월 8일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2014년 3월 21일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2014년 3월 21일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중국·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헤거 두손모음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 양곤 바간 헤호 5일..... 요금문의
-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요금문의
-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 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패구 황룡 6일..... 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향) 7일..... 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향) 5일..... 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종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가격으로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